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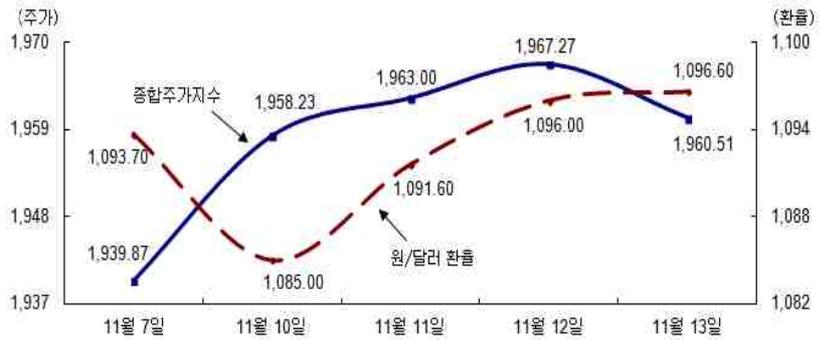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모방형 산업구조에서 창조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7~11.13)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미래연구본부 :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모방형 산업구조에서 창조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개요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외형상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경쟁력 상에서 위기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제품과의 경합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증폭하고, 후발공업국인 중국산 제품에 수출시장을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 수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 薄利多賣형** 및 **가공무역 加工貿易형** 구조가 지속되어 수출의 고부가가치가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에 대해 제조업 강국들인 미, 중, 독, 일 4개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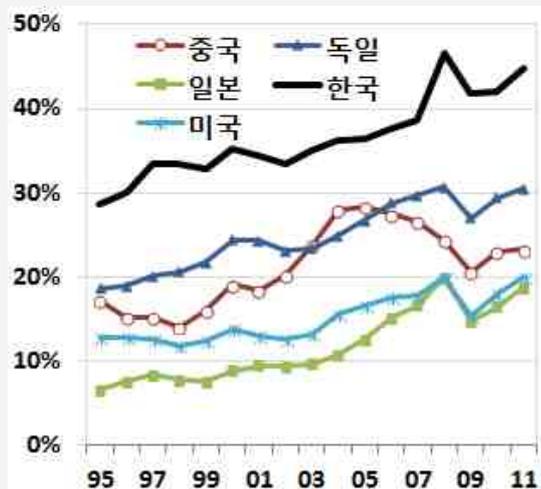
■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현황

(현 수준) 2011년 기준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4개국 평균 23.1%보다 21.6%p 높은 수준이다.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 44.7%의 의미는 1,000달러 어치의 수출을 할 때 447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나머지 553달러가 국내에 남겨진다는 의미이다. 주요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독일이 30.5%, 중국 23.3%, 미국 19.9%, 일본 18.7%로 낮은 유출률을 보인다. 한편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대상국은 중국이 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EU 4.4%, 일본 4.4%, 미국 3.9%의 순서이다. **(추세 변화)** 1995년 이후 대부분 국가의 부가가치 유출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한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38.7%에서 2011년 44.7%로 6.0%p 급등한 반면, 미국(2.2%p 상승), 일본(2.1%p 상승), 독일(0.8%p 상승) 등은 소폭 상승 하는 데에 그쳤다. 특히, 중국은 같은 기간 26.6%에서 2011년 23.3%로 오히려 3.3%p가 개선되었다.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2011년)>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 업종별 추세) 주요 업종별로는 화학, 철강 산업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이 과도한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중 석유/석탄 정제 및 핵연료 제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인 88.2%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학(52.5%), 철강이 포함되는 금속광물 제조업(47.7%)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석탄/석유 정제 및 핵연료 산업의 경우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88.2%)과 4개국 평균(52.3%)의 격차가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차이(35.9%p)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수출 부가가치의 과잉 유출 원인

수출의 부가가치의 해외유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산업 구조가 고부가·고기술화하지 못하고 중진국 발전 단계인 범용 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이 과도한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중요 중간재 및 자본재의 높은 수입의존성)** 첫째, 한국의 허리 산업(소재·부품)이 취약하여 중요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1년 기준 중요중간재수입/GDP 비중은 한국이 12.7%로 주요 제조업 강국 4개국중 가장 높다. 또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자본재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로 독일(4.1%)과 비슷한 수준이나 중국(2.5%), 일본(1.3%), 미국(2.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술경쟁력의 취약) 둘째,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여 기술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제조업의 R&D 집약도(R&D지출/부가가치)가 개선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한국이 9.8%로 일본(12.5%), 미국(2011년 기준 10.9%)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국가 기술경쟁력 수준을 보여주는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는 2011년 현재 0.41배로 여전히 적자를 기록중이다.

(비효율성 개선 미흡) 셋째, 주요국에 비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높다. 2009년 현재 노동생산성(이하 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 2005년 불변가격 달러 기준)을 추정해 보면,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시간당 24.6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62.8달러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부존자원의 부족) 넷째, 주된 요인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 등과 같은 부존자원의 부족도 과도한 부가가치 유출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2013년 기준 수입원자재/GDP 비율은 13.0%로 중국(5.8%), 독일(4.5%), 일본(6.0%), 미국(1.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 시사점

수출 부가가치의 국내잔존률이 낮을 경우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여력을 저하시켜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시장에서 비가격경쟁력 제고, 신산업의 주도 등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가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소재·부품의 수요기업과 생산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비가격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혁신적인 생산 방식의 확산,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1. 개 요

○ 연구 배경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외형상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경쟁력 상에서 위기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 제품과의 경합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증폭하고, 후발 공업국인 중국산 제품에 수출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음
- 이는 우리 수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 薄利多賣 형 및 가공무역 加工貿易 형 구조가 지속되어 수출의 고부가화가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저부가·저기술 제품 위주의 생산 방식은 수출 산업과 기업에게 충분한 이익 창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고부가·고기술 제품을 위한 재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 경로를 고착화시킴

○ 연구 목적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수준을 제조업 강국들인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4개국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함
 - 또한 주요 수출 산업별로는 부가가치 유출의 현황과 시간에 따르는 추세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판단해 보고자 함
- 나아가 수출 부가가치 유출을 유발하는 가능한 원인을 제시해 봄으로써 수출 구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해 봄

○ 연구 방법

- (부가가치의 의미¹⁾) 부가가치 value added는 국가 경제 단위에서 GDP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가. 부가가치와 산출의 개념 참조.

-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경쟁력 저하에 따른 시장 손실, 투자 재원 부족 등으로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
 - 생산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낮을 경우 외수 부문에서의 성과가 내수 부문으로 이전되는 통로가 차단됨
 - 정부의 경우에도 민간 부문에서의 부가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 조세 수입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재정정책이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²⁾의 의미) 총수출액에서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중간재수입액을 차감함
- 예를 들어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이 30%이면, 수출 실적이 1000달러일 경우 이중 300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700달러가 국내에 잔존한다는 의미임
 -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출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1차 후방 연관 국가(산업) 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 구조상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및 산업 간의 부가가치 흐름이 파악될 수 있는 지표임
 -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1국의 부가가치행렬계수표 상의 산업간 부가가치 흐름이 국가별 산업별로 확장된다는 개념임
- (이용 통계 자료)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 계산³⁾은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WIOD: World Input Output Database)상의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 Output Table)⁴⁾를 이용
- WIOT는 1995~2011년까지 41개국(기타국 포함), 35개 산업의 내생 부문과 부가가치, 산출, 최종수요 등의 외생 부문으로 구성됨
 - 또한 부가가치 유출의 원인에 대해서는 OECD STAN, OECD BTD, OECD OECD MSTI, EU KLEMS 등의 국제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공식용어는 아니며 본 보고서에서 서술의 편의상 만들어낸 조어임.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도출 방법 참조.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나. WIOT의 개요 참조.

2.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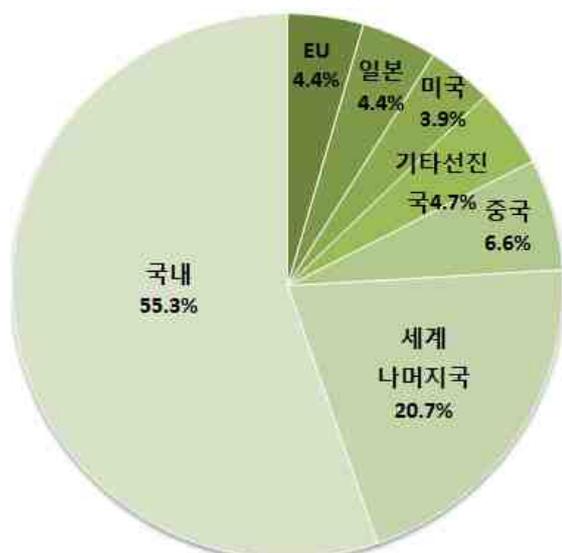
○ (현 수준)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수출 부가가치의 해외유출이 과도한 편

- 한국은 1,000달러의 수출을 할 경우 447달러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제조업 강국인 중국, 독일, 일본, 미국의 4개국은 평균 231달러 유출에 불과
 - 2011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4개국 평균 23.1%보다 21.6%p 높은 수준임
 - 주요 제조업 강국들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을 살펴보면 독일이 30.5%, 중국 23.3%, 미국 19.9%, 일본 18.7%의 순서임
- 한국이 1,000달러의 수출을 할 경우 중국으로의 유출이 66달러, EU와 일본으로의 유출이 각각 44달러, 미국으로의 유출이 39달러로 분석
 -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는 국내에 55.3%가 남고 해외로의 유출이 44.7%가 되는데, 이중 중국으로의 유출이 6.6%로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외 유출대상국중 비중이 큰 국가로는 EU 4.4%, 일본 4.4%, 미국 3.9% 등임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2011년)>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의 교역 대상국별 구성(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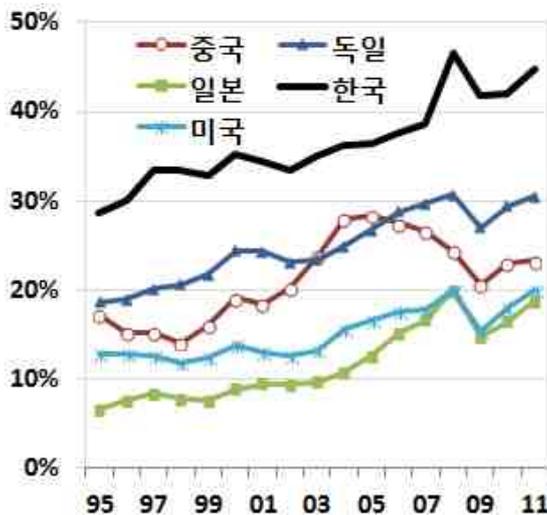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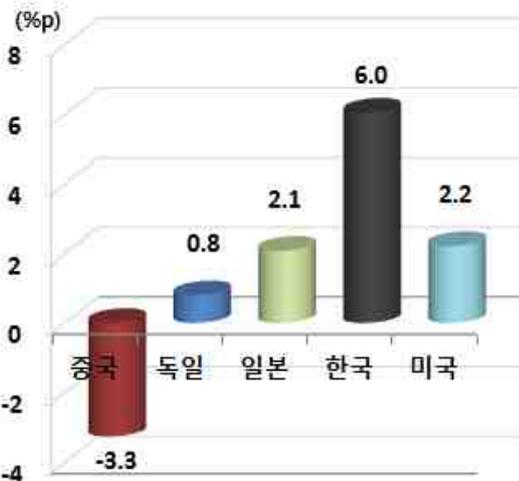
- (추세 변화) 국제 교역의 트렌드로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상승이 불가 피한 측면이 있으나, 한국의 상승폭이 과도한 측면이 존재
 - 제품의 복잡화로 인한 부품수의 증가, 신흥공업국의 부상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상승은 세계적인 추세
 - 주요국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1995년 이후 높아지는 모습이나 중국의 경우는 2004년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하는 추세임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주요국들의 부가가치 유출률이 단기적으로 일제히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됨
 - 분석 범위를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가장 최근인 2011년으로 한정할 경우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 상승폭이 과도
 - 한국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2007년 38.7%에서 2011년 44.7%로 6.0%p 급등한 반면,
 - 미국(2.2%p 상승), 일본(2.1%p 상승), 독일(0.8%p 상승) 등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소폭 상승 하는 데에 그침
 - 특히, 중국은 2007년 26.6%에서 2011년 23.3%로 오히려 3.3%p가 하락함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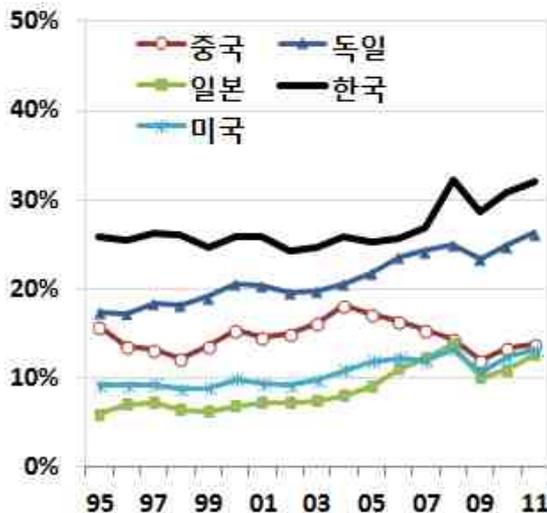
<주요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변화(2011년-2007년)>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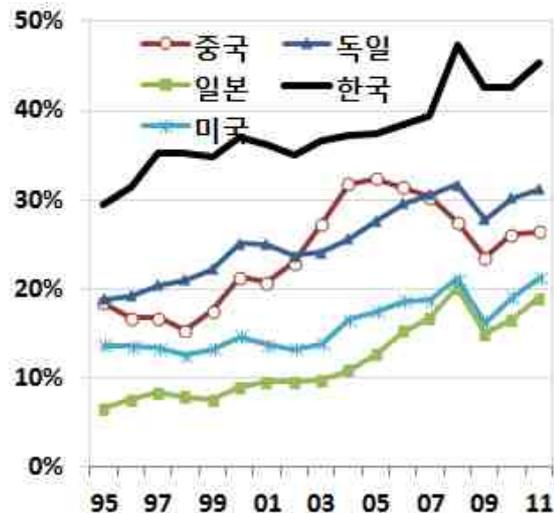
- (경공업/중화학공업 추세)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모두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중화학공업이 경공업보다 주요국에 비해 격차가 큰 편
- 한국 경공업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분석 대상 기간(1995~2011년) 동안 상승폭이 크지 않은 편
 - 2011년 기준 한국의 경공업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32.1%로 4개국 평균 16.4%보다 15.7%p가 높은 수준임
 - 추세적으로 보면 한국 경공업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1995년 25.9%에서 2011년 32.1%로 6.2%p 상승함
- 경공업에 비해 중화학공업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제조업 전반의 유출률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11년 기준 한국의 중화학공업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5.4%로 4개국 평균 24.4%보다 21.0%가 높은 수준임
 - 추세적으로 보면 한국 중화학공업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1995년 29.4%에서 2011년 45.4%로 16.0%p 상승함
 - 한편, 경공업이 중화학공업보다 높은 부가가치 잔존률을 보이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이나 비교대상 제조업 강국들은 이미 산업 고도화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업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상황임

<주요국 경공업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중화학공업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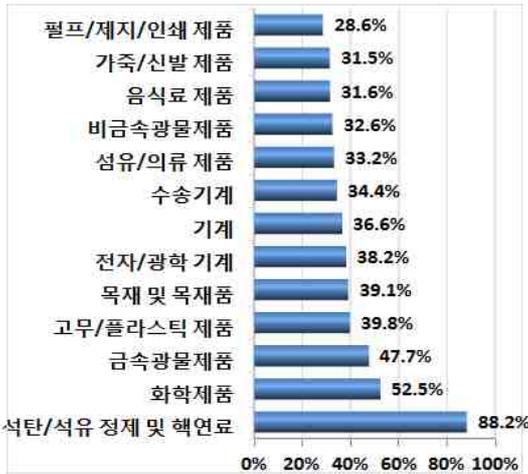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제조업 주요 업종⁵⁾) 화학, 철강 산업의 부가가치 유출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편으로 분석
- 2011년 현재 업종별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화학 및 철강 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기계(일반 기계, 전자, 정밀, 자동차, 조선) 등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고, 경공업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기록
 - 주요 업종별로 보면 석유/석탄 정제 및 핵연료 제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인 88.2%로 나타남⁶⁾
 - 다음으로 화학산업이 52.5%, 철강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광물 제조업이 47.7% 등의 순서임
 - 한편 전자/광학 기계, 기계, 수송기계 제조업 등의 수출 부가가치유출률은 제조업중들중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임
 - 다음으로, 가죽/신발, 펄프/제지 산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유출률을 기록함
 - 2011년 현재 한국과 미·중·독·일 4개국의 업종별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차이를 보면 화학, 목재, 철강 등이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기록
 - 석탄/석유 정제 및 핵연료 산업의 경우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이 88.2%인 반면 4개국 평균은 52.3%로 35.9%p의 가장 큰 격차를 보임
 - 다음으로는 화학제품이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유출률이 52.5%로 4개국 평균인 28.7%보다 23.7%p가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다음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한국과 4개국 평균치의 차이가 17.0%p를 보이고 있으며, 철강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광물제품이 16.9%p의 격차를 나타냄
 - 한편, 대부분의 경공업 제품들의 한국과 4개국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 수송기계는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유출률이 34.4%로 높은 편에 속하였으나 4개국평균도 26.6%에 달하고 있어, 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낮은 7.8%p의 격차를 보임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라. 주요국 제조업 업종별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참조.

6) 석유/석탄 정제 및 핵연료 제조업의 중국, 독일, 일본, 미국의 4개국 평균은 43.4%에 불과.

<한국 주요 업종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2011년)>



<주요 업종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한국과 주요국평균 격차(2011년)>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3. 한국 수출 부가가치의 과잉 유출 원인

○ 우리 수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 薄利多賣 형 및 가공무역 加工貿易 형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제품 자체가 고부가화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

-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산업 구조가 고부가·고기술화하지 못하고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범용 제품 위주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여전히 주요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가공하는 형태의 조립 산업 비중이 높은 점도 원인으로 지적됨
- 이는 우리 산업계가 수출 시장의 외연이 확대되는 현실에 만족하여 양적인 확대에 주력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발전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7) 본 장은 엄밀히 말하면 수출이 아닌 제조업의 부가가치 과잉 유출 원인 분석이나, 제조업 생산품의 국내수요율과 수출수요율간에 원자재, 중간재, 기술체화수준 등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수출 부가가치의 과잉 유출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중요 중간재 및 자본재의 높은 수입의존성) 한국 산업이 중후장대형, 최종재 중심의 구조가 유지됨에 따라 허리 산업(소재·부품)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중요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준을 기록
- 중요 중간재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제조업 강국 4개국중 가장 높은 편
 - 2011년 기준 한국의 중요 중간재용 제조업 제품 수입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 달함
 - 반면, 중국(8.0%), 독일(11.1%), 일본(2.3%), 미국(2.5%)의 제조업 제품 수입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자본재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
 - 2011년 기준 한국의 중요 자본재 수입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독일(4.1%)과 비슷한 수준이나 중국(2.5%), 일본(1.3%), 미국(2.2%)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주요국 중요중간재수입/GDP 비율(2011년)>⁸⁾



<주요국 중요자본재수입/GDP 비율(2011년)>⁹⁾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8) WIOD 통계 산업 부문 c9~c15의 수입제품이 해당국 제조업 중간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

9) WIOD 통계 산업 부문 c9~c15의 수입제품이 해당국 제조업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술경쟁력의 취약)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여 기술무역수지가 적자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국내 제조업에서 R&D가 확대되고 있으나 R&D와 성과의 시차 효과, R&D 자본 스톡의 누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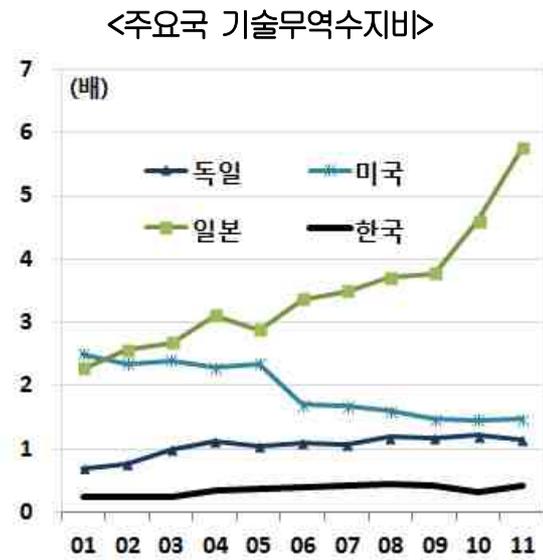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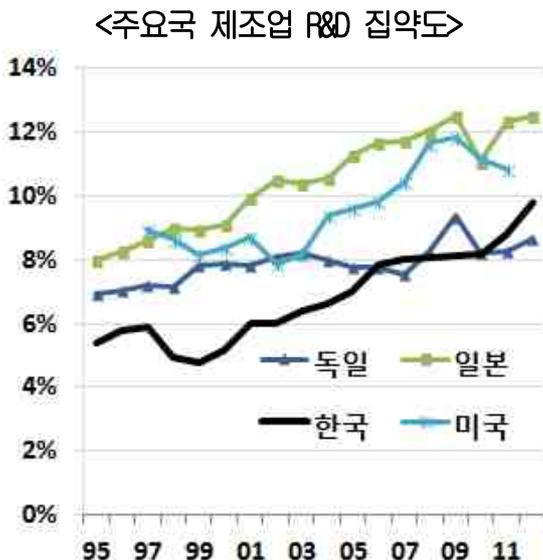
- 2012년 제조업의 R&D 집약도(R&D지출/부가가치)는 한국이 9.8%로 독일(8.7%)보다는 높으나, 일본(12.5%), 미국(2011년 기준 10.9%)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특히, 한국 제조업 R&D 집약도가 높아진 것은 최근 현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성과는 R&D투자(flow)가 아니라 R&D투자가 축적된 R&D자본(stock)의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R&D 성과 지표로 볼 수 있는 기술무역수지에서 한국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국가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를 보면 2011년 현재 한국은 0.41배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함

- 반면 독일(1.15배), 미국(1.46배), 일본(5.75배)은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가 무역흑자를 의미하는 1 이상의 값을 기록함



자료 : OEC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주 : OECD STAN R&D expenditures / GDP.

자료 : OECD, MSTI.
주 : 기술수출액 / 기술수입액.

○ (비효율성 개선 미흡) 주요국에 비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높아 부가가치 창출력이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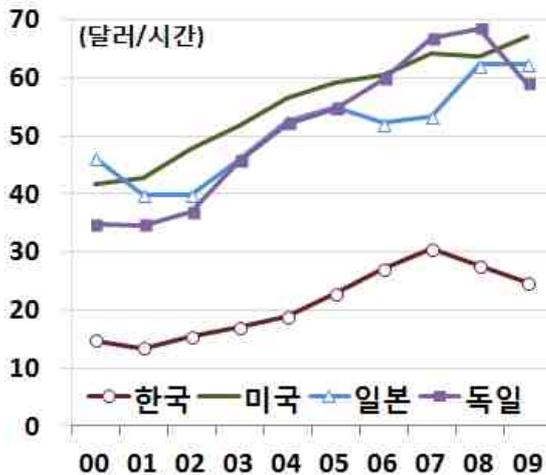
- 노동투입 측면에서 근로시간은 많으나 저생산성 문제가 지속

- 한·미·일·독의 노동생산성(이하 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 2005년 불변가격 달러 기준)을 추정한 결과,
- 2009년 현재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시간당 24.6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62.8달러의 39% 수준을 기록함
- 또한 추세적으로 보면 한국 제조업 생산성/미·일·독 제조업 생산성 비율은 2000년 36%에서 2009년 39%로 약 3%p 상승에 그침

- 여전히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비효율성의 문제가 경제 전반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TFP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TFP의 경제 성장 기여율'을 살펴보면,
- 한국('01~'05년 연평균)은 68%로 독일('01~'07년)의 184%, 일본('01~'06년)의 95%, 미국('01~'07년) 23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임

<주요국 제조업 노동생산성¹⁰⁾>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통계 이용).

<주요국 TFP기여도/경제성장률¹¹⁾>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EU-KLEMS 통계 이용).

10)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총근로시간, 피고용자 기준, 2005년 불변 가격 기준.

11) 기간중 연평균 환산치, 기간은 한국('01~'05), 독일('01~'07), 일본('01~'06), 미국('01~'07).

○ (부존자원의 부족)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이 과도한 현상의 주된 요인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 등과 같은 부존자원의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

-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음
 - 한국의 중간재 부문에서 원자재수입/총수입재 비중은 2013년 기준 약 41.1%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원자재/GDP 비율은 13.0%임
 - 한편, 주요국 원자재수입/총수입 비중은 중국 35.2%, 독일 22.3%, 일본 52.6%, 미국 27.3%를 기록함
 - 또한 원자재수입/GDP 비율은 중국 5.8%, 독일 4.5%, 일본 6.0%, 미국 1.9%에 불과함

- 특히, 에너지 관련 광물 자원의 부존량이 희소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기록
 - 한국의 중간재용 원자재 수입중 에너지 관련 광물 수입액 비중은 2013년 현재 31.5%이며 GDP 대비 비율로는 10.0%를 기록함
 - 일본의 중간재용 원자재수입/총수입 비중이 한국보다 높으나 원자재수입/GDP비율은 4.4%로 한국보다 크게 낮은 상황임

<원자재(1차산품)수입 비중(2013년)>



<에너지광물자원수입 비중(2013년)>



자료 : OECD BTD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 원자재 및 에너지광물자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 중간재 투입만 해당.

4. 시사점

- 수출 부가가치의 국내 잔존률이 낮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주력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 이고, 결국에는 세계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임
-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기술 경쟁력 제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산업의 스마트화 등의 노력이 필요

첫째, 글로벌 시장에서 비가격경쟁력 제고. 신산업의 주도 등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가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 산업정책의 큰 방향에서는 한국의 산업간 구조 및 산업 내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창조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산업계 내부적으로는 기존 주력 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생명과학, 신소재, 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신산업의 기반 육성, 경쟁력 강화, 기술 표준 선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둘째, 소재·부품의 수요기업과 생산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

- 자유무역의 확대, 국제 분업화의 확산 등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이지 않고는 저부가가치 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음

- 중간재 단계 부가가치의 중심이 되는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 확보 및 관련 R&D 투자 확대,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부품에 비해 낮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는 소재 부문의 경우 소재 수요 기업에 대해서 국산 소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국내 수요 확충 노력이 요구됨

셋째, 무엇보다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비가격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투자 리스크가 높아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원천·핵심 기술 연구에 대하여 공공 부문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편, 연구개발의 핵심 자산인 연구 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 학과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졸업 후 전공 관련 연구직으로의 취직 지원 등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단기적으로는 연구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 출입국 행정 편의 제공 등과 같은 해외 고급 연구 인력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임

넷째, 혁신적인 생산 방식의 확산,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 특히, 최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확산시켜 산업 전반의 생산성으로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공교육 체계 정비, 산·학간 연계 강화, 노령인력의 재교육, 퇴직자의 전직 지원 등의 큰 틀에서의 인적자본 고도화 정책 등이 필요하며,
 -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의 생산요소시장에서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기업에서는 전사적 자원 관리의 강화, 교육 투자 확대,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다각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다섯째, 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경제 규모나 교역 규모에 비해 에너지 수입 비중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이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함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중화학 공업의 에너지 의존도 개선, 녹색산업과 같은 쉐에너지 산업 비중(굴뚝 없는 산업)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또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에너지 의존 비중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시장 조성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별 침】

가. 부가가치와 산출의 개념¹²⁾

- (산출의 구성) 산출(gross output)은 부가가치와 중간투입(중간소비)로 구성됨
 - (중간소비 - intermediate consumption / intermediate input) 또는 중간투입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투입(소비)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액을 의미
 - 중간소비에는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뿐만 아니라 주활동을 지원하는 부수적 활동(예: 구매, 판매, 마케팅, 회계, 자료처리, 운송, 보관, 유지보수, 보안 등)에 투입되는 재화 및 서비스 가액도 포함
 - ※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다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될 경우 중간소비(중간투입)이라 하며, 그 용도가 소비자나 투자의 최종 수요일 경우는 중간소비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 - value added)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산출액에서 중간소비(중간투입)를 차감하여 산출
 -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
 -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부담금 등을 포함
 -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부가가치 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를 차감한 것으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소득 등으로 구성
 -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는 생산자 소유의 고정자산이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감모와 일상적인 비율의 진부화 또는 손실 등에 따른 고정자산 가치의 감소로 정의

12) 한국은행(2012),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pp. 27~37의 내용을 요약.

-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 판매 등의 활동,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소유 또는 이용, 고용된 노동력 또는 피용자보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산출 및 부가가치의 구성>

산 출	중간소비(중간투입)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보조금공제)

나. WIOT의 개요

○ 세계투입산출표(WIOT: World Input Output Table)는 산업연관표를 세계 경제 및 국제 교역 전체로 확장한 국제산업연관표임

- WIOT는 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WIOD: World Input Output Database)에서 구축되고 있으며, 1995~2011년까지 41개국(기타국 포함), 35개 산업의 내생 부문과 부가가치, 산출, 최종수요 등의 외생 부문으로 구성됨

<WIOT의 형태(3부문 예시)>

수요	A국	B국	세계기타국	A국	B국	세계기타국	합계
투입	중간재수요	중간재수요	중간재수요	최종재수요	최종재수요	최종재수요	
A국 중간재투입	A국의 국산 중간재사용	B국의 A국 생산 중간재사용	기타국의 A국 생산 중간재사용	A국의 국산 최종재사용	B국의 A국 생산 최종재사용	기타국의 A국 생산 최종재사용	A국 총산출
B국 중간재투입	A국의 B국 생산 중간재사용	B국의 국산 중간재사용	기타국의 B국 생산 중간재사용	A국의 B국 생산 최종재사용	B국의 국산 최종재사용	기타국의 B국 생산 최종재사용	B국 총산출
세계기타국 중간재투입	A국의 기타국 생산 중간재사용	B국의 기타국 생산 중간재사용	기타국의 기타국 생산 중간재사용	A국의 기타국 생산 최종재사용	B국의 기타국 생산 최종재사용	기타국의 기타국 생산 최종재사용	세계기타국 총산출
	A국 부가가치	B국 부가가치	세계기타국 부가가치				
	A국 총산출	B국 총산출	세계기타국 총산출				

자료 : WIOD(2012),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 Contents, Sources and Methods (April 2012, Version 0.9).

- WIOD의 대상 국가는 40개국(EU 27개국 + 캐나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대만, 터키, 인도네시아, 러시아)과 세계 나머지(Row)의 1개국임
- 시계열은 1995~2011년의 기간 동안의 17개 연도로 구성됨
- 국별 산업 부문은 총 35개 산업으로 되어 있으며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ision 3)과 유사한 체계를 가짐

< WIOD 산업 구분 >

ISIC 코드	WIOD 산업 명칭	WIOD 코드
AtB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c1
C	Mining and Quarrying	c2
15t16	Food, Beverages and Tobacco	c3
17t18	Textiles and Textile Products	c4
19	Leather, Leather and Footwear	c5
20	Wood and Products of Wood and Cork	c6
21t22	Pulp, Paper, Paper , Printing and Publishing	c7
23	Coke, Refined Petroleum and Nuclear Fuel	c8
24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c9
25	Rubber and Plastics	c10
26	Other Non-Metallic Mineral	c11
27t28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c12
29	Machinery, Nec	c13
30t33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c14
34t35	Transport Equipment	c15
36t37	Manufacturing, Nec; Recycling	c16
E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c17
F	Construction	c18
50	Sale, Maintenance and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tail Sale of Fuel	c19
51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c20
52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pair of Household Goods	c21
H	Hotels and Restaurants	c22
60	Inland Transport	c23
61	Water Transport	c24
62	Air Transport	c25
63	Other Supporting and Auxiliary Transport Activities; Activities of Travel Agencies	c26
64	Post and Telecommunications	c27
J	Financial Intermediation	c28
70	Real Estate Activities	c29
71t74	Renting of M&Eq and Other Business Activities	c30
L	Public Admi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c31
M	Education	c32
N	Health and Social Work	c33
O	Other 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c34
P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c35

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도출 방법

○ 수출의 부가가치유출률은 국제투입계수행렬 \rightarrow 국제생산유발계수행렬 \rightarrow 국제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 \rightarrow 수출 가중치의 조정 방법으로 계산됨

○ 국제생산유발계수행렬의 도출

- 국제생산유발계수행렬은 일국 생산유발계수행렬을 세계 수준으로 확장한 것으로 일국내 산업간 모든 재화 및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유발되는 생산 과급효과 구조가 명시된 것임

- WIOT를 이용하여 국제생산유발계수 행렬을 계산할 경우 행과 열이 각각 1435×1435 의 정방 행렬의 형태를 가지게 됨

· 1435 의 개수는 41 개국 \times 35 개 산업을 의미하며, 국제생산유발계수 행렬은 투입계수 행렬에 대하여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됨

$$G = (I - A)^{-1}$$

단, G 는 국제생산유발계수행렬, I 는 항등행렬, A 는 국제투입계수행렬 (국제투입계수행렬 A 의 원소인 국제투입계수는 투입산출표 내생 부문의 중간재 부문을 각 국가의 각 산업별로 나눈 값임)

○ 국제부가가치계수행렬의 도출

- 국제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은 국제생산유발계수행렬을 국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계수로 조정하여,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의 생산이 한 단위 발생할 때, 1435 개의 각 국별 및 산업별 부문에 이전되는 부가가치율을 표현한 행렬임

- 국제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은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됨

$$VA = \hat{A}^v \times G$$

단, VA 는 국제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 G 는 국제생산유발계수행렬이며, \hat{A}^v 는 국별·산업별 부가가치계수벡터를 주대각원소로 하고 나머지는 0 의 값을 가지는 대각행렬을 의미함

- 국제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VA)의 각 원소를 $v_{i,j}^{k,l}$ 라 표현할 경우 이는 l 국가 j 산업에 대한 세계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모든 국제 교역 및 국내 이동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k 국가 i 산업에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음

$$VA = \begin{bmatrix} \begin{matrix} V_{1,1}^{1,1} & V_{1,2}^{1,1} & \dots & V_{1,n}^{1,1} & \dots & V_{1,1}^{1,l} & V_{1,2}^{1,l} & \dots & V_{1,j}^{1,l} & \dots & V_{1,n}^{1,l} & \dots & V_{1,1}^{1,m} & V_{1,2}^{1,m} & \dots & V_{1,n}^{1,m} \\ V_{2,1}^{1,1} & V_{2,2}^{1,1} & \dots & V_{2,n}^{1,1} & \dots & V_{2,1}^{1,l} & V_{2,2}^{1,l} & \dots & V_{2,j}^{1,l} & \dots & V_{2,n}^{1,l} & \dots & V_{2,1}^{1,m} & V_{2,2}^{1,m} & \dots & V_{2,n}^{1,m}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V_{n,1}^{1,1} & V_{n,2}^{1,1} & \dots & V_{n,n}^{1,1} & \dots & V_{n,1}^{1,l} & V_{n,2}^{1,l} & \dots & V_{n,j}^{1,l} & \dots & V_{n,n}^{1,l} & \dots & V_{n,1}^{1,m} & V_{n,2}^{1,m} & \dots & V_{n,n}^{1,m} \end{matrix}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begin{matrix} V_{1,1}^{k,1} & V_{1,2}^{k,1} & \dots & V_{1,n}^{k,1} & \dots & V_{1,1}^{k,l} & V_{1,2}^{k,l} & \dots & V_{1,j}^{k,l} & \dots & V_{1,n}^{k,l} & \dots & V_{1,1}^{k,m} & V_{1,2}^{k,m} & \dots & V_{1,n}^{k,m} \\ V_{2,1}^{k,1} & V_{2,2}^{k,1} & \dots & V_{2,n}^{k,1} & \dots & V_{2,1}^{k,l} & V_{2,2}^{k,l} & \dots & V_{2,j}^{k,l} & \dots & V_{2,n}^{k,l} & \dots & V_{2,1}^{k,m} & V_{2,2}^{k,m} & \dots & V_{2,n}^{k,m}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V_{i,1}^{k,1} & V_{i,2}^{k,1} & \dots & V_{i,n}^{k,1} & \dots & V_{i,1}^{k,l} & V_{i,2}^{k,l} & \dots & V_{i,j}^{k,l} & \dots & V_{i,n}^{k,l} & \dots & V_{i,1}^{k,m} & V_{i,2}^{k,m} & \dots & V_{i,n}^{k,m}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V_{n,1}^{k,1} & V_{n,2}^{k,1} & \dots & V_{n,n}^{k,1} & \dots & V_{n,1}^{k,l} & V_{n,2}^{k,l} & \dots & V_{n,j}^{k,l} & \dots & V_{n,n}^{k,l} & \dots & V_{n,1}^{k,m} & V_{n,2}^{k,m} & \dots & V_{n,n}^{k,m} \end{matrix}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begin{matrix} V_{1,1}^{m,1} & V_{1,2}^{m,1} & \dots & V_{1,n}^{m,1} & \dots & V_{1,1}^{m,l} & V_{1,2}^{m,l} & \dots & V_{1,j}^{m,l} & \dots & V_{1,n}^{m,l} & \dots & V_{1,1}^{m,m} & V_{1,2}^{m,m} & \dots & V_{1,n}^{m,m} \\ V_{2,1}^{m,1} & V_{2,2}^{m,1} & \dots & V_{2,n}^{m,1} & \dots & V_{2,1}^{m,l} & V_{2,2}^{m,l} & \dots & V_{2,j}^{m,l} & \dots & V_{2,n}^{m,l} & \dots & V_{2,1}^{m,m} & V_{2,2}^{m,m} & \dots & V_{2,n}^{m,m}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V_{n,1}^{m,1} & V_{n,2}^{m,1} & \dots & V_{n,n}^{m,1} & \dots & V_{n,1}^{m,l} & V_{n,2}^{m,l} & \dots & V_{n,j}^{m,l} & \dots & V_{n,n}^{m,l} & \dots & V_{n,1}^{m,m} & V_{n,2}^{m,m} & \dots & V_{n,n}^{m,m} \end{matrix} \end{b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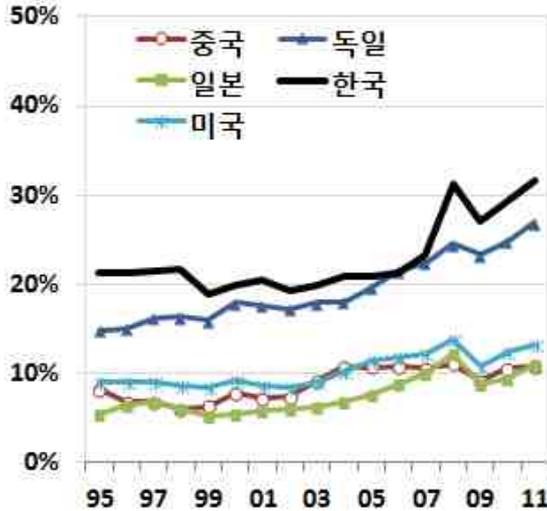
단, l 및 k 의 최대치 m 은 41이며, i 및 j 의 최대치 n 은 35임. 이에 따라 위 부가가치계수행렬은 1435 by 1435의 정방행렬임

○ 수출 가중치의 조정

- Hummels et al.(2001)의 경우 국가 간 수직적 분업 구조를 분석하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는 부가가치계수행렬의 반대의 개념인 수입유발계수행렬에 일국의 산업별 수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이에 본 보고서의 특정 국가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개별 산업의 총부가가치(이론적으로 1의 값을 가짐)에서 타국으로 이전되는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산업별 수출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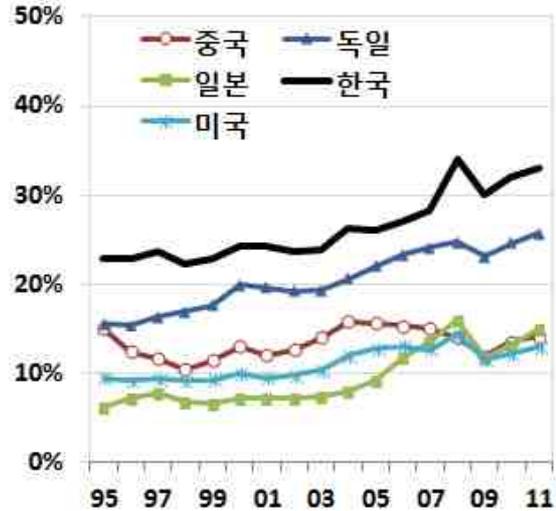
라. 주요국 제조업 업종별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주요국 음식료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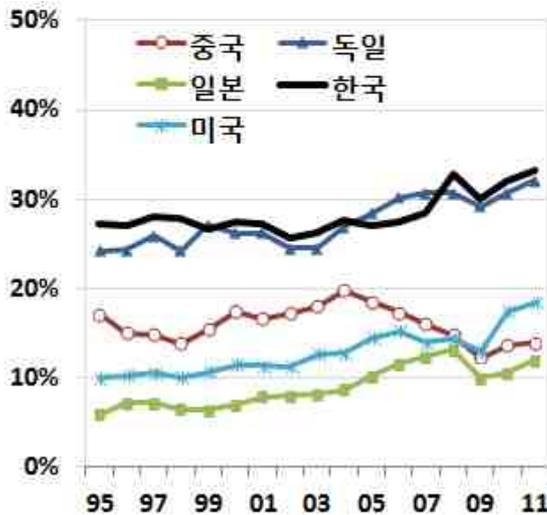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기타제조업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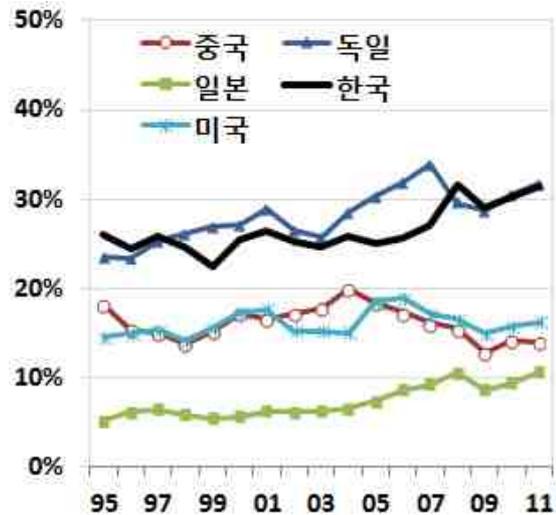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섬유·의류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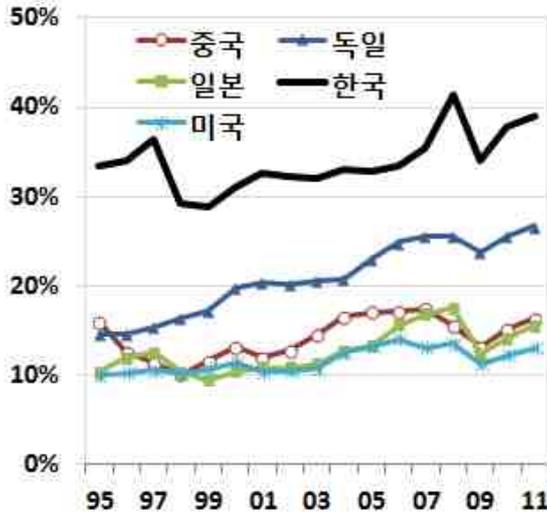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가죽·신발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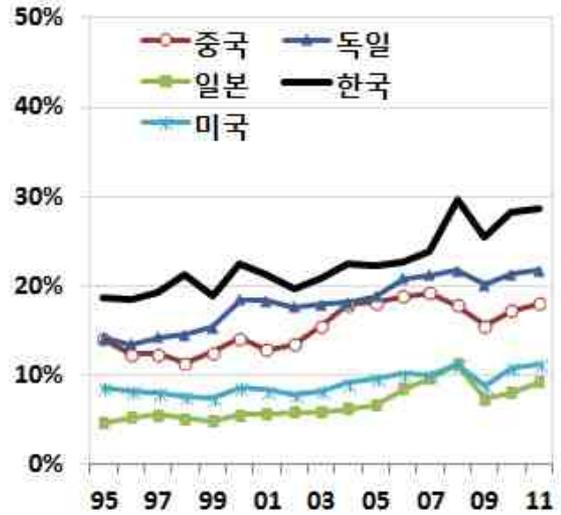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목재 및 목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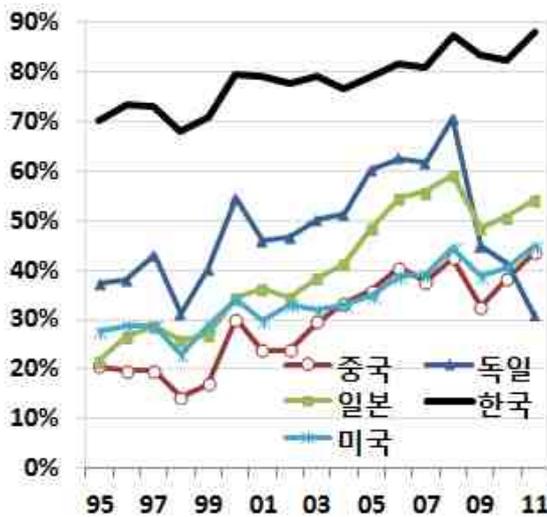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펄프·제지·인쇄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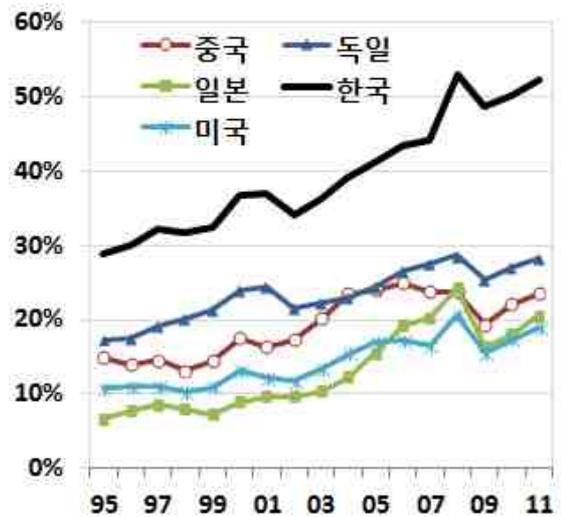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석탄·석유 정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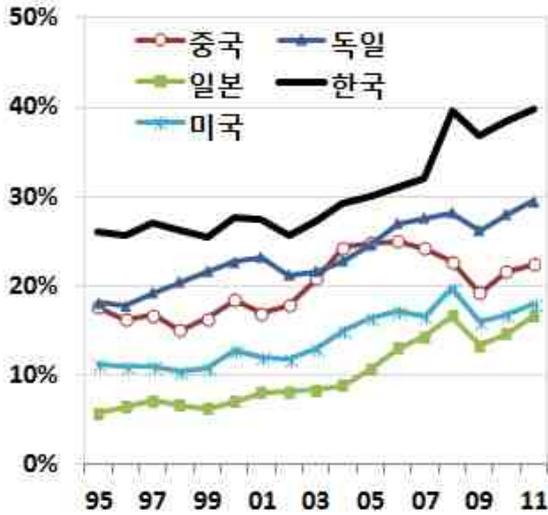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화학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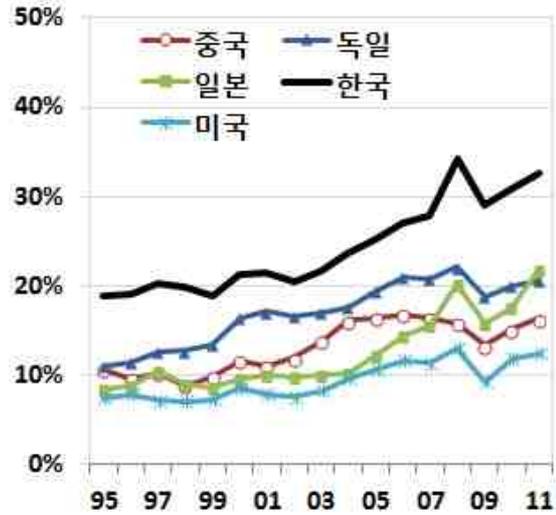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고무·플라스틱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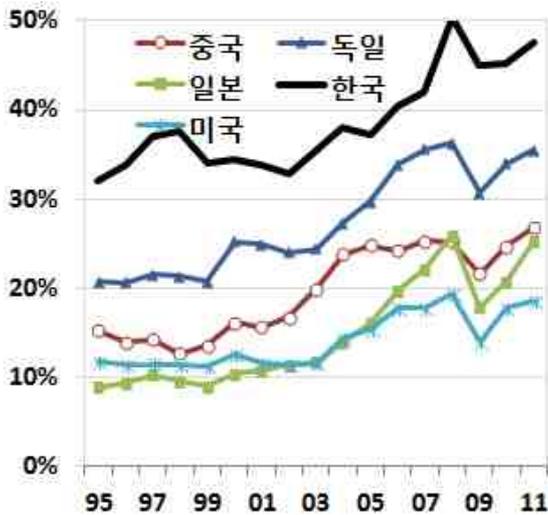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비금속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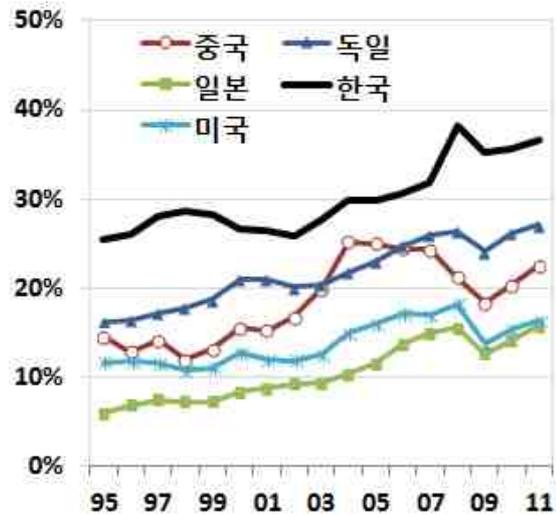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금속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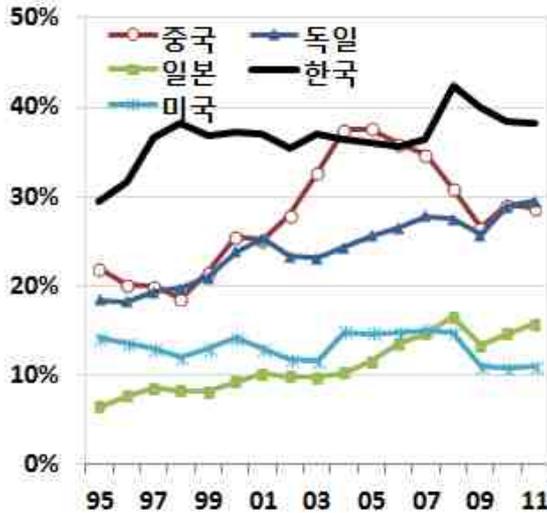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기계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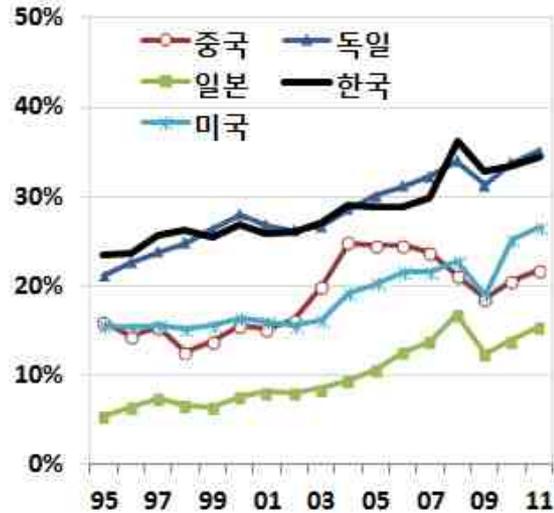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전자·광학 기계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요국 수송 기계 제품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추이>



자료 : WIOD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참고 문헌>

한국은행(2012), 「우리나라의 분기 국민계정」.

현대경제연구원(2012), “고성장-저부가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 효율성 제고 방안”, 현안과 과제, 12-40.

EU KLEMS(www.euklems.net).

Hummels, D., D. Rapoport and K. Yi(1998), “Vertical Specialization and the Changing Nature of World Trade,” FRBNY(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Economic Policy Review, June, pp. 79~99.

Hummels, D., J. Ishii and K. Yi(2001), The Nature of Growth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 Worl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4, pp. 75~96.

OECD통계(stats.oecd.org).

WIOD(2012),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 Contents, Sources and Methods (April 2012, Version 0.9).

World Input-Output Database(www.wiod.org). **HRI**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0.8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0.9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1월 6일	11월 1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39	2.34	-0.05%p
	엔/달러	85.86	98.51	105.04	115.21	115.77	0.56¥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375	1.2477	0.0102\$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555	17,653	98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6,793	17,393	60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08	2.21	0.13%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83.8	1,096.6	12.8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36.5	1,960.5	24.0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11월 6일	11월 1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78.04	74.24	-3.80\$
	Dubai	107.99	100.38	107.88	79.80	77.56	-2.24\$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69.79	265.20	-4.5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